이념투표의 영향력 분석:
이념의 구성, 측정 그리고 의미

이갑윤 · 이현우 | 서강대학교

| 논문요약 |

이 글은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념투표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글의 주요한 주장은 첫째, 유권자의 이념이 17대 대선에서 투표결정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다. 둘째, 이념측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이념투표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념과 관련된 다차원의 이슈태도점수를 통해 이슈평가이념이라는 지표를 만들었고, 이 지표가 이론적으로뿐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더 정확하게 유권자의 이념을 측정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이념점수를 통한 분석 결과 이명박과 정동영 후보의 경쟁에서는 이념투표가 영향을 미치지만, 이명박과 이회창 후보 대결에서는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앞으로 이념투표는 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념의 영향력은 단순히 투표결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당차원에서 그리고 더 크게는 경제-사회적 측면에서도 그 영향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 이념투표, 이념성향, 이슈태도, 경로분석, 이념

I. 서론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결과는 한국정치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온 가장 중요한 동인이었다. 최초의 문민정부였던 김영삼 정부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진보세력 정부의 출현, 그리고 다시 보수세력인 이명박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념적으로 이질적인 집단 간의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선거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동적인 정치권력의 변동과정에 출발점은 다름 아닌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이었다. 따라서 어떤 부류의 유권자들이 어떤 요인들에 영향을 받아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했는지 분석하는 것은, 선거연구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정치 변동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선거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지역주의였다.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역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 다른 어떤 요인도 투표행태를 설명하는 데 유의하지 않거나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진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즉, 집합적 투표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투표자의 출신지역이 어디인가에 따라 지지후보나 정당이 거의 결정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선거에서 지역주의는 투표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을 통하여 투표결정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도 작용을 한다. 구체적으로 출신지역 변수가 정당지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정치이슈의 태도에도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투표결정에 지역주의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변수만으로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설명하려 한다면 선거분석이 지나치게 단순화될 뿐만 아니라 선거의 동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지역주의 변수만으로는 왜 어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지난 선거와 다른 정당후보를 선택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선거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투표행태의 지속적인 성향뿐 아니라 각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고려하는 단기적 요인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주의가 득세한 지역의 경우도 설문자료를 분석해 보면 정치이념이나 후보자 평가 등 다양한 요인들이 투표결정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다. 지역주의가 투표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사실이지만 지역주의만으로 한국선거를 설명하려는 것이 타당치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지역주의와 관

계가 없는 출신지역 유권자들을 설명할 분석틀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의 등장으로 세대와 이념이라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균열축을 통한 유권자 투표결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이후 유권자들은 투표결정 요인으로서 이들 새로운 요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념이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글의 구성을 보면 먼저 이념투표에 관한 기존논의를 정리한 후 이념측정에 관한 논의를 다룬다. 이념은 몇 가지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이념이 투표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이념변수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론적 논의를 위해서는 유권자의 이념을 독립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후보자의 이념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서로 다른 이념측정 방식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어떤 방식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법인지 평가한다. 둘째로, 새로 측정된 이념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며, 또한 얼마나 투표결정에 중요한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된 포괄적 모델에서 이념의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분석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념투표의 현재적 의미와 더불어 향후 어떻게 자리매김할지에 관해 언급하도록 한다.

II. 이념에 관한 기존 논의들

서구의 선거연구에서 이념이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이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부터 이루어진 이념연구 내용을 분류해보면 이념의 세 가지 측면이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 중에서도 유권자들의 이념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혹은 세련되었는가가 가장 먼저 연구된 주제였다(Campbell et al. 1960, ch. 10). 두 번째로는 이

념과 이슈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로 이념이 이슈평가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을 통해서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구주제는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에 근거하여 후보자나 정당을 평가하고 투표결정을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이 세 가지 주제들은 상호배타적이지 않다. 정치세계에 대한 진보적 혹은 보수적 성향이 후보자 평가와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쳤는가, 만일 그렇다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이념연구의 공통적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얼마나 이념적 사고를 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이념의 세련도에 관한 초기연구는 일반유권자들의 이념수준을 낮게 평가하였다(Converse 1975; Kinder 1983). 그러나 후속 연구들에 따르면 이념정체성의 영향력을 측정해 보면 유권자들은 이념에 기초한 정치반응능력이 있으며, 따라서 초기연구들이 유권자들의 이념세련도를 너무 낮게 평가했다는 것이다(McKelvey and Ordeshook 1990; Levitin and Miller 1979).

유권자의 이념세련 정도에 관한 연구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캠블 등의 분류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태도구조(attitude structure)와 개념화 수준(level of conceptualization)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서 4가지 이념세련도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중 이념세련도가 가장 높은 이념가(ideologue)들은 고도의 추상적 개념으로 구성된 인식구조를 가지고 있다(Campbell et al. 1960, 193). 이들 이념가들은 합리적이며 정보가 충분한 정치소비자들이다. 이념은 정치영역에서 벌어지는 사건들과 다른 영역의 사안에 대한 판단을 연결하는 균형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에게서 이념은 정치적 인식을 구조화시키고 정치지식의 효과적 전달과 유지를 가능케 하는 기재가 된다(Converse 1964, 211-215). 반면에 이념적 세련도가 가장 낮은 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은 개방형 질문에 대해 이슈와 관련된 응답을 전혀 하지 못한 부류이다. 때론 정당이나 후보자들을 평가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개방형 질문에 대해 완성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정치적 모호자들(political inarticulates)로 분류된다.

1950년대 자료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연구자들은 2.5%의 유권자들만이 이념가에 속하며, 22.5%는 정치적 모호자들에 속한다는 결론을 통해 전반적으로 유권자들의 이념적 세련도가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위의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1960년대의 미국유권자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전보다 이념가들의 비율이 늘어났으며(Nie et al. 1979), 특히 이념적 일관성의 비율이 모든 교육수준의 유권자들에게서 모두 높아졌다는 것이 발견됨에 따라 유권자들의 이념수준에 대한 연구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Niemi and Weisberg 1993, ch. 4).

한편, 이념정체성에 관한 연구들은 개념화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념의 감성적 요인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0년대 후반의 설문자료에 기초한 연구들에 따르면, 자유-진보의 축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정당소속감보다는 덜 안정적이지만 정책적 태도보다는 안정적으로 평가되었다(Converse and Markus 1979; Levitin and Miller 1979). 또한 이념적 정체성이 투표선택에 당파성이나 이슈선호와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Miller et al. 1976; Miller and Shanks 1982).

정책적 이념성향을 주제로 한 연구들에서는 다른 주제들보다 훨씬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는데, 주된 이유는 신념체계구조의 측정에 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책이념의 개념을 확대하여 이슈투표를 정책이념의 지표로 간주한다면, 이념투표의 가능성을 찾는 것은 가능하다(Page and Jones 1979). 정책이념에 관한 연구는 이념적으로 세련된 신념체계가 상대적으로 더 잘 조직화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특정정책 선호가 투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주제로 대별된다. 한 개인의 이념적 성향은 특정한 이슈군에 대한 태도로 요약될 수 있다(Abramson, Aldrich and Rohde 1982). 이념세련도가 높을수록 이슈에 대한 태도에 일관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슈 제약성(issue constraint)이라는 특징을 나타내며, 이슈투표가 항상 높은 수준의 이념적 세련도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이슈태도의 유사성(issue proximity)은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한다.

이후 경험적 연구들은 당파성만이 투표결정에 중요하다는 고전적 연구들의 결론과 달리 정책정향성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Key 1966; Asher 1976). 여기에는 정치 · 환경적 요인으로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념성이 강한 골드워터(Goldwater)와 맥거번(McGovern)의 등장과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의 민권과 관련된 이슈가 주목받았던 것이 유권자의 정책지향성을 자극하였다. 이 시기에 나이와 동료들은(Nie et al. 1979) 새롭게 몇 개의 이념과 연

관된 이슈태도 측정을 통해 이념지표를 산출하는 방식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자유와 보수라는 이념적 틀 안에서 유권자들의 정책적 태도는 규정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이념투표에 관한 포괄적인 자료와 설득력을 제공한 것은 페이지와 샤피로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Page and Shapiro 1983).

이념투표에 관한 대다수 연구결과들이 동의하는 부분은, 유권자들이 좌/우라는 척도를 통해서는 자신들의 성향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정책적 입장과도 연관을 갖는다(Klingemann 1979; Inglehart 1984). 또한 정당들의 이념적 위치를 택하도록 했을 때 응답자들의 평가는 실제 그 정당이 갖는 이념적 위치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Castles 1982). 이러한 투표선택 논리는 다운스(Downs 1957)가 처음 제시하였다. 다운스는 정당의 이념을 합리적 유권자들의 투표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인식틀로 사용된다는 도구적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다운스의 논리는 유권자들이 이념선상에서 자신과 가장 근접한 후보자나 정당을 택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선호분포(distribution of preference)가 어떤 모양을 이루는가에 따라 정당의 개수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선호분포가 단봉(single peak)을 이룰 경우 정당들은 이념선상에서 상호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며, 따라서 중간투표자(median voters)의 지지를 얻는 것이 선거승리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념은 유권자들이 일일이 모든 이슈들을 평가할 필요 없이 정당이나 후보를 선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편의적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다운스의 연구를 시작으로 공간이론으로 발전하면서 서구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성향과 가까운 정당을 택한다는 논지의 경험적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었다(Hinich and Pollard 1981; Enelow and Hinich 1982).

고전적인 다운스의 이슈투표와 같은 유형에서 방향성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 라비노위츠와 맥도널드(Rabinowitz and Macdonald 1989)의 방향이론이다. 경험적으로 방향이론이 다운스의 근접이론보다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중심점(neutral point)에 같은 방향인가의 여부이다. 아무리 유권자와 후보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도 같은 방향이라면 방향이 다르지만 거리상 가까운 후보보다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 방향이론이 제시하는 차

별적인 결론은 중앙에 위치한 정당이 강한 선거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정치에서 합의가 아니라 갈등이 중요한 지지의 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이념투표의 개념이 유용성을 갖게 된 것은 2002년 이후 선거분석이다. 이전 선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권자들의 이념이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연구초점이 이념투표 그 자체는 아니었다. 예를 들어 이정복(1992)의 경험적 연구결과는 당시 여당이던 민자당에 대한 투표는 유권자의 이념에 따라 구분되지만 야당인 민주당이나 국민당에 대한 지지는 극단적 진보와 보수를 제외하면 보수, 중도, 진보의 유권자 사이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124). 한편, 정영태(1993)는 이념투표 자체를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계층 간 후보선택의 차이를 밝혀냈다. 14대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 후보는 유권자 전반에 걸쳐 고른 지지를 받은 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이 강한 김대중 후보는 농민, 전문직, 산업노동자의 지지를 그리고 기업가 출신의 보수적인 정주영 후보는 자본가와 전문직, 판매서비스직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에서 이념투표의 단초를 제공하였다(163-175).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는 그동안 이념분류보다 더 적실성이 있었던 여-야 개념의 혼돈을 가져왔다. 1998년 지방선거 직전 15대 대선에서 뒤바뀐 여야관계와 이념분할이 투표결정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해 본 연구에 따르면(김재한 1999),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국민회의 지지자들 가운데 본인이 진보적이라는 비율(40.1%)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39.5%)보다 많지 않았다. 반면에 보수적인 자민련이나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보수적 정체성 비율은 진보의 두 배가량이었다. 응답자들은 정당의 위상에 따라 본인의 정당성향을 여야 성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이전보다는 이념별 정당지지 강도가 약해졌지만 한나라당 지지자와 국민회의 지지자가 보수층과 진보층으로 구분되었다(138-141). 결국 정권교체 직후 지방선거에서도 이념이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지역주의와 이념균열의 관계를 분석한 최영진(2001)의 시각은 지역주의의 약화 혹은 강화와 연관되어 있어 흥미롭다. 그는 지역주의와 이념균열이 동일

한 균열축일 경우 지역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반대로 이들이 서로 경쟁관계의 균열축을 갖는다면 정치균열은 재편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영진은 한국지역주의의 주요원인을 박정희 이후 호남에 대한 경제적인 상대적 불평등 발전과 지역민간의 계급적 위계구조로 파악하여, 이념과 지역주의는 일치된 기반을 가짐으로써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17대 총선에서 이념과 세대 변수의 영향력을 측정한 결과(최준영 · 조진만 2005)는 최영진의 예측과는 다른 해석을 보여준다. 먼저 17대 총선에서는 16대 총선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세대변수가 등장했으며, 이념변수의 영향력도 이전보다 더 커졌다. 영남에서는 이념과 세대균열이 모두 발견되는데 젊고 진보적인 유권자들의 보수정당에 대한 투표가 적었다. 호남에서는 세대균열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진보적인 유권자들은 열린우리당을,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새천년민주당을 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들은 구체적 분석 없이도 지역주의의 강한 영향력, 한국정당들의 이념적 유사성, 아직도 잔존하는 진보나 급진에 대한 이념적 경직성으로 인해 이들이 다수를 구성할 수 없는 정치문화를 예시하면서 이념투표의 효용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이념의 투표결정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중 서구적 분석틀을 적용하여 한국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가 있다(강원택 1998). 15대 대통령선거를 분석한 강원택에 따르면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는 저소득층에서 보수성향이 나타나며, 이들이 가장 사회복지가 필요한 집단이지만 오히려 한국에서는 상류층에서 그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62-64). 하지만 직접 투표행위와 연관하여 살펴보면 김대중이나 이회창 후보 지지자들은 후보자와 이념적 거리가 매우 가까우며, 이는 이념공간상의 거리를 이용해 유권자 투표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78-79).

강원택(2002)은 김대중 정부의 등장 이후 남북관계와 재벌개혁 등에 관한 보수와 진보의 차별성이 이전보다 뚜렷했다는 점에서 16대 총선에서도 이념투표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지정당별 응답자의 이념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응답자들의 이념성향과 정당의 이념과의 거리를 측정해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 타정당에 비해 지지정당과 훨씬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110). 그리고 지역균

열과 이념균열이 일치하거나 상호강화하는 관계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이념성향은 연령이나 학력, 소득변수 등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공간이론적 관점에서 16대 대통령선거를 분석한 지병근(2006)은 다운스(Downs)적인 근접모형(proximity model)을 수정한 방향모형(directional theory)을 통해 이념이 투표에 미친 영향이 기존연구에서보다 더 크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의 유권자들은 고전적 근접모형에서 주장하는 바처럼 근접한 후보나 정당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 위치가 뚜렷한 후보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두 정당이 경쟁하고, 유권자들이 별로 정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조건에서 더욱 발생하기 쉬운데, 한국에서 젊은 층의 투표가 노무현 후보에게 쏠린 것을 이 방식의 투표결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념투표를 주장할 수 있는 논문들이 이미 다수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투표 연구가 아직도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 앞에서 살펴본 연구들 대부분이 이념 변수와 투표결정과의 관계를 이변량 분석방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교차분석이나 분산분석을 사용한 연구들은 이념과 관련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이념변수의 영향력이 과대평가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다변량 분석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모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보다 중요한 이유는 측정에 관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는 이념변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었다. 기존연구들은 설문조사 자료 중 응답자 스스로가 자신의 이념적 위치를 밝힌 자료(self-placement)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 값은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응답자 간 차이를 계산하거나 절대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서도 투사(projection)와 같은 심리기재가 영향을 미쳐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값을 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념투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념값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측정된 이념은 어떤 요인들이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주관적 이념점수 대신에 응답자들이 대답한 '이슈평가이념(issue index ideology)' 이 정확한 이념측정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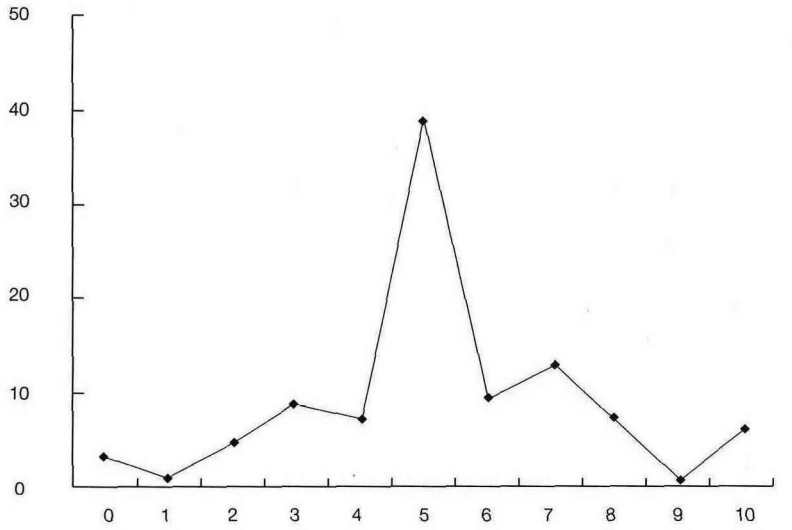
면, 이 측정치를 구성하고 있는 이슈평가 항목들의 중요성을 따져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념변수가 경제에 대한 관심정도, 정부업적평가, 선호정당 등의 정치태도 요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가 되면서, 동시에 이념변수가 지역이나 소득수준, 성별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종속변수로 고려되는 포괄적 모형을 제시해야 한다.

III. 주관적 이념평가의 신뢰성과 새로운 이슈평가 이념지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스스로 평가한 이념점수를 사용한 이전 연구들과 달리 이 글에서는 응답자들이 이념을 구성하는 이슈들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합산하여 이슈평가 이념을 계산하였다. 설문자료에 나타난 유권자들의 주관적 평가에 따른 이념점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치 않은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이념점수가 의미하는 바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주관적 이념평가 점수는 다른 응답자들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통계적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이념평가 기준이 개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이념이 서로 다른 점수로 측정되거나 다른 이념이 같은 점수로 평가되는 등 이념평가 점수의 신뢰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주관적 평가에서 응답자들은 중간 값을 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의 〈그림 1〉은 이번 설문에서 나타난 응답자들의 주관적 이념분포이다. 중간점수인 5점에 38.9%의 응답자들이 속해서 주변 이념점수인 4점과 6점에 각각 7.4%와 9.3%에 비해 거의 30% 이상 차이를 보인다. 한국인들의 이념분포가 중도에 많이 모이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중간 값인 5점과 주변 점수와의 차이는 유권자의 이념분포 그 자체를 반영했다기보다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무난한 중간점수를 택하려는 응답자의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관적 이념평가점수의 두 번째 문제점은 응답자 자신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의 이념평가 위치도 매우 자의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응답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의 이념을 일관적인 잣대로 평가한다고 보기 힘들다. 즉 선호여부에 따라 후보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표

〈그림 1〉 이념성향 분포 (0점 가장 진보, 10점 가장 보수)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동영 후보 지지자들의 이념평균은 4.63점이고, 정후보의 이념평가 점수가 4.64점으로 지지자들은 정후보와 이념적으로 매우 가깝게 느끼고 있다. 반면에 이명박 후보나 이회창 후보 지지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이념이 다른 후보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 지지자들이 평가한 이 후보 이념점수는 6.39점으로 이회창 후보의 5.68점이나 정동영 후보의 3.93점보다 보수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회창 후보 지지자들 역시 이회창 후보의 이념위치를 6.44점으로 평가하여 정동영 후보의 4.23점이나 이명박 후보의 5.77점보다 보수적인 후보로 평가하였다. 주관적 이념평가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지후보와 타후보와의 이념적 차이를 비교해 볼 때도 나타난다. 이명박 후보 지지자들의 이후보와 정동영 후보의 이념점수 차는 2.5점인 데 비하여, 정동영 후보 지지자들이 인식하는 이명박 후보와 정 후보의 이념차이는 0.6점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지후보 별로 두 후보의 이념차이 인식은 4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념적으로 가장 가까운 후보를 선택한다는 다운스의 주장

〈표 1〉 지지자별 후보이념평가 점수

후보이념 / 지지자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정동영(4.63)	5.30	5.65	4.64
이명박(5.62)	6.39	5.68	3.93
이회창(5.71)	5.77	6.44	4.23
전체 평균(5.34)	6.09	5.80	4.19

괄호 안은 지지자들의 이념평균

에 따르면 이명박 후보나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이념위치를 보면 지지가 서로 뒤바뀐 것으로 나타난다. 이명박 후보 지지자들의 이념평균은 5.62점으로 이명박 후보(6.39점)보다 오히려 이회창 후보(5.68점)에 더 가깝다. 마찬가지로 이회창 후보 지지자들의 이념평균 점수는 5.71점으로, 이들이 지지하는 이회창 후보(6.44점)보다 이명박 후보(5.77점)와 매우 가깝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다운스의 주장이 유권자의 투표선택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못할 가능성이다. 이는 단순히 후보자와의 이념적 거리차를 기초로 투표선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이 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유권자들의 주관적 이념평가 점수가 신뢰성이 없어서 정확한 이념위치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명박 후보나 이회창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주요이슈들에 대한 의견분포를 보면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또한 두 후보 지지자들의 이념점수 차이가 0.1점 이하로 매우 동질적임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 사이에 0.7점 정도의 이념점수의 차로 인식하는 것은, 그 차이가 실제 이념에 근거한 차이라기보다는 지지후보를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자신의 후보선택을 합리화하고 강화하려는 설득효과나 투표효과가 작용하여 이들이 측정오차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김주찬과 윤성이(2003)는 요인분석을 통해 16대 대선에서 3개 차원의 이슈들이 후보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선거기간 동안 중요한(salient) 이슈로 다루어졌거나 후보 간의 입장이 뚜렷이 다른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는 지지후보별로 차이가 나지만, 후보자들의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이슈들에서는 이념투

표가 적용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는 개인의 이념성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미 지지후보를 결정한 상황에서 지지후보의 정책적 입장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념은 투표결정에 원인변수가 아니라 후보결정 이후 나타나는 결과변수가 되는 셈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응답자들 스스로가 평가한 주관적 이념점수가 신뢰성과 타당성에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측정한 이념변수를 제시한다. 정치이념은 정치세계를 구성하는 추상적 관념 및 가치로서 정치행위에 대한 의미 부여와 판단을 가능케 하는 정치적 삶의 상징적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이념은 집단적 정체성 형성과 공동체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Campbell et al. 1960, 192-193; Hamilton 1987, 39). 이러한 일반론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사토리(Satori 1969)가 일찍이 정치이념의 측정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이래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 이념측정에 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컨버스(Converse 1964)는 이념대신에 믿음체계라는 용어를 선호하였다.

제링(Gerring 1997)이 그동안 학자들이 주장했던 이념의 다양성을 정리한 후 결론 내렸듯이 기존의 이념연구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우선 이념은 일관성을 갖는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사회적 의견의 구성체로서 이념은 다른 의견이나 판단들과 연관되며 일관성과 안정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념투표는 이념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의견에 따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념투표는 이념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의견에 따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표 2〉 이슈평가 이념에 사용된 설문항

차원	설문항
경제분야	재벌규제 개혁 복지예산의 축소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정치 외교	대미외교 관계 대북지원
사회, 교육	경쟁과 교육기회의 평등 사형제 폐지

합의적 정의에 근거하여 볼 때 유권자의 이슈태도를 통한 이념측정이 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념을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일관된 평가체라고 한다면 이념측정은 응답자들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에 대한 평가태도의 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표 2〉에 제시된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을 이념측정을 위한 이슈평가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자료의 신뢰성을 크롬바 알파(Crombach alpha) 값을 통해 확인했는데, 그 값은 0.522로 결코 높지는 않았지만 포함된 어떤 설문항목을 제외해도 값이 더 커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설문항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아도 21개의 쌍 중 1개를 제외하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IV. 이념투표 분석

1. 이명박과 정동영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의 주관적인 이념점수 대신에 이슈평가에 따른 이념점수를 측정하여 이념투표가 투표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 것이 다음의 〈표 3〉이다. 이 표는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분석에는 이회창 후보를 비롯하여 기타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이 후보와 정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만을 선택한 이유는 범주형(catogorical) 종속변수를 분석하는데, 그 값이 이분화된 경우(dummy)에는 분석과 해석이 용이하지만 종속변수가 3개 이상의 값을 가질 경우 결과치들이 상대적 확률 값이 되어 해석이 복잡해진다. 이 연구의 주제를 고려할 때 다변량의 범주자료를 분석하는 기법인 다변량로짓(multinomial logit) 대신에 이변량 로짓(binomial logit)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의 표는 4개의 분석모델 결과를 보여준다. 모든 모델들은 관심변수인 이념변수 이외에 통제변수로서 응답자들의 출신지역과 세대변수를 포함하고 있

〈표 3〉 이념투표 로짓분석: 이명박 vs. 정동영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주관적 이념 포함		후보와 이념거리 포함		후보와 이념방향 포함		이슈평가이념 포함	
변수명	B	유의도	B	유의도	B	유의도	B	유의도
상수값	0.126	0.75	0.968	0.00	0.822	0.01	7.220	0.00
충청	-0.214	0.55	-0.203	0.55	-0.177	0.60	-0.336	0.36
호남	-2.140	0.00	-2.071	0.00	-2.082	0.00	-2.117	0.00
영남	0.433	0.14	0.403	0.17	0.436	0.14	0.374	0.23
연령	0.272	0.00	0.266	0.00	0.273	0.00	0.073	0.42
주관적 이념	0.146	0.00	-	-	-	-	-	-
지지후보와 이념거리	-	-	-0.192	0.00	-	-	-	-
지지후보와 이념방향	-	-	-	-	0.047	0.00	-	-
이슈평가이념	-	-	-	-	-	-	0.415	0.00
예측 정확도(%)	81.7		82.2		82.2		83.8	
Cox & Snell R^2	0.18		0.20		0.19		0.24	

다. 이외에 기타 인구통계변수인 교육수준, 성별, 소득 등의 변수를 고려해보아도 위에서 분석한 모델들과 별 차이가 없었다. 또한 경제발전에 대한 관심과 노무 현정부에 대한 평가라는 두 개의 변수도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결과는 본문에서 살피는 표의 모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여기서 제시한 모델들이 모델확정(model specification)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따라서 좀 더 포괄적인 모델들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델 1〉은 그동안 보편적으로 이용했던 응답자들의 자기이념위치 변수 값을 기초로 분석한 것이다. 결과를 해석해 보면 서울/경기/강원 지역 유권자들에 비해 호남출신 유권자들은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반면에 영남출신 유권자들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출신지에 따른 후보지지 편향성은 호남출신 유권자들에게서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 또 하나의 통제변수인 연령의 효과도 유의하다. 즉 이념을 통제한 이후에도 연령이 높을수록 이명박 후보를 지지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 모델에서 나타난 응답자의 주관적 이념점수라는 변수의 계수값을 보면 통계적으

로 유의하며, 양의 값이므로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이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의 크기는 지역주의 변수는 물론이고 연령이 미치는 영향보다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델 1〉의 결과에 따르면 비록 이념투표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작다고 결론짓게 된다.

〈모델 1〉이 이념투표의 개념을 진보-보수라는 이념 축을 기준으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와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췄는 데 비해, 〈모델 2〉는 유권자들이 두 후보 사이의 상대적 이념 차를 바탕으로 투표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1] 여기서 음의 계수 값이 의미하는 바는, 만일 유권자들 사이에 이명박 후보와의 이념점수 차가 없다면, 정동영 후보와 이념적 거리가 멀수록 이명박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리적으로 볼 때 〈모델 1〉은 유권자의 진보-보수 이념구별을 통해 투표결정을 분석하였지만, 〈모델 2〉에서 유권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뿐 아니라 경쟁후보와의 이념거리까지 고려하여 투표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세련된 유권자를 상정하고 있다. 분석결과도 〈모델 2〉에서 사용한 이념변수가 더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계수 값이 〈모델 2〉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라비노위츠와 맥도널드(1989)가 제시한 방향이론은,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이념강도와 이념방향에 영향을 받아 투표결정을 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토하고 있다. 즉 유권자들은 후보자와 기본적인 이념방향이 같은지에 의해서 이슈와 관계된 찬반의 정서를 결정한다. 또한 얼마나 후보자의 선호강도가 강한 지도 투표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다운스적 판단에 따르면 유권자와 후보자 사이의 절대적 거리가 투표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이지만, 방향이론에 의하면 유권자와 후보자의 거리가 가깝다 해도 둘 사이가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방향을 추구한다면 유권자는 같은 방향의 더 먼 후보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념

---

1) 이 모델에서 상대적 이념거리란 응답자와 지지후보 사이의 거리에서 응답자와 다른후보 사이의 거리로 뺀 값이다. 예를 들어 이명박 후보 지지자들의 경우는 절대값(본인의 이념점수−이명박 후보 이념점수)−절대값(본인의 이념점수−정동영 후보 이념점수)로 따진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 이념거리 값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의 이념거리뿐 아니라 상대후보와 얼마나 멀게 느끼는가에 의해 결정되며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계산한다.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공감하는 방향에서 더 강한 선호를 보이는 후보를 선택하기도 하는데, 유권자가 중시하는 이슈에 대해 같은 이념적 위치를 취한다 해도 후보가 그러한 위치를 강조하지 않는다면, 유권자는 그 후보의 위치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는 있지만 그 이슈를 강조한 후보를 지지하기도 한다.

지병근(Byong-Kuen Jhee 2006)은 이러한 분석틀을 이용하여 16대 대통령선거를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와 마지막 연합에 실패하고 보수층에서 색깔론을 강조한 것이 오히려 노무현 후보의 좌파적 이념성향을 뚜렷이 부각시킴으로써 좌파적 유권자들의 단합을 가져왔으며 선거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방향이론의 논리에 기초하여 〈모델 3〉은 이념을 유권자와 후보자 사이의 거리개념뿐만 아니라 방향개념을 포함하여 측정한 값으로 사용한 것이다. 분석결과 이념방향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지만 경험적으로 그 결과가 다른 모델에 비하여 우월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 값을 비교해 보면 〈모델 2〉에서 측정한 상대적 이념거리 변수의 값보다 워낙 작아서 이 변수로 인한 발생확률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병근의 16대 대통령선거 분석과는 달리 17대 대통령선거에서 방향이론에 따른 이념변수 측정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모델 4〉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념을 응답자들의 이슈평가의 합으로 통하여 산출하였다. 정치이념을 구성하는 각 차원의 설문항들의 중요성이 모두 같지는 않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이념을 구성하는 각 차원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한 가중치(weight)를 사용해야 하지만 각 차원의 비중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모든 설문항의 비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 측정치는 각 이슈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합산한 것으로 이념의 정의에 기초하여 볼 때 주관적 이념평가에 비하여 타당성과 일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앞의 다른 모델에서 보다 이념투표의 영향력이 가장 높이 나타나며, 또한 설명력 역시도 이전의 모델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 간의 투표결정에 이념투표는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선거동안에 제기되었던 이슈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를 측정하여 생성한 이념변수가 가장 적실성이 높다는 것을 밝

혀냈다.

2. 이명박과 이회창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회창 후보는 15.1%를 득표하여 중요한 후보 중 하나였다. 선두주자였던 이명박 후보가 BBK 사건 등으로 도덕성에 의심을 받는 시기에 보수진영의 대안을 자처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보수진영에서 이명박 후보와 득표경쟁을 하였다. 따라서 보수적인 두 이후보 사이에서도 이념투표가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분석결과가 다음의 〈표 4〉이다.

다음의 표에서 각 모델이 택한 이념변수는 앞의 〈표 3〉에서와 같다. 여러 통제변수들은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 사이의 경쟁이 정동영 후보와는 다른 양상인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먼저 모든 모델에서 출신지역 변수 중 충청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음의 값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충청출신 유권자들은 이회창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표 4〉 이념투표 로짓분석: 이명박 vs. 이회창

	모델 5		모델 6		모델 7		모델 8	
	주관적 이념 포함		후보와 이념거리 포함		후보와 이념방향 포함		이슈평가이념 포함	
변수명	B	유의도	B	유의도	B	유의도	B	유의도
상수값	1.110	0.00	0.943	0.00	0.964	0.00	2.433	0.01
충청	-0.651	0.02	-0.613	0.03	-0.605	0.04	-0.639	0.03
호남	0.469	0.32	0.602	0.20	0.595	0.20	0.607	0.20
영남	-0.103	0.68	-0.086	0.73	-0.109	0.66	-0.034	0.89
연령	0.242	0.00	0.227	0.00	0.226	0.00	0.148	0.09
주관적 이념	-0.034	0.49	-	-	-	-	-	-
지지후보와 이념거리	-	-	-0.115	0.01	-	-	-	-
지지후보와 이념방향	-	-	-	-	0.036	0.00	-	-
이슈평가이념	-	-	-	-	-	-	0.100	0.07
예측 정확도(%)	84.9		84.5		84.4		84.0	
Cox & Snell R^2	0.02		0.03		0.03		0.02	

라서 이회창 후보가 충청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령변수를 보면 나이가 적을수록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모든 모델에서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2)]

〈모델 5〉를 보면 앞의 〈모델 1〉과 달리 주관적 이념 변수가 두 이후보 사이의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권자의 이념에 따라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모델 6〉을 보면 상대적 거리에 기초한 이념투표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예상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여러 유권자들에게 이명박 후보와의 이념적 차이가 없다 해도, 만일 이회창 후보와 이념적 거리가 커질수록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의 동일한 변수를 다루는 〈모델 2〉와 비교해 보면 후보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해졌는데 분석대상인 두 후보 모두 보수적 성향을 가졌다는 점에서 이념투표가 약하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모델 7〉에 대해서는 앞의 〈모델 3〉과 유사한 해석을 하게 된다. 즉 〈표 4〉의 다른 모델에 비해 별로 향상된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한편, 〈모델 8〉에서 이슈평가 이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델 4〉와 비교할 때 후보자 간 경쟁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표 3〉에서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는 이념적 차이가 컸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이념투표가 뚜렷이 나타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 사이에서 선택은 이념적 차이가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록 2〉의 마지막 모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권자들의 선택은 이념이나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 등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두 후보의 정치이념적 유사성으로 인해 그러한 조건들은 차별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후보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경제발전에 대한 관심여부이다. 경제발전을 중시한 유권자들은 두 이 후보의 경제관리 능력에 주목한 것이다. 즉 이번 선거에서 투표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로 경제발전을 꼽은 응답자

2) 이러한 현상은 이회창 후보가 이명박 후보를 비판하는 선거운동에 대해 젊은 층이 이회창 후보의 도덕성에 대한 기대와 기존정치에 대한 비판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정동영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 이회창 후보를 택한다는 비율과 그 반대의 비율이 젊은 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들은 이명박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따라서 두 후보 중 선택은 이념이 아니라 유권자가 경제발전 문제를 얼마나 중시하는가에 따라 두 후보 중 경제발전 능력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명박 후보가 유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이슈투표

이념투표가 이슈태도의 총체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세분화하여 이슈 중에서 어떤 이슈가 후보자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각각의 이슈 영향력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모델 9〉를 보면 이명박과 정동영 후보의 경쟁에서 후보를 선택하는데 여러 이슈 중 성장과 환경보호 이슈 및 한미관계에 대한 태도가 99% 유의확률의 기준을 통과하였다. 환경보호보다 경제성장을 중시할수록 그리고 한미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할수록 이명박 후보를 뽑을 확률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와 대북지원을 축소하는 입장을 취할수록 이명박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이념적으로 두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이 뚜렷이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선거 동안 대북지원 이슈가

〈표 5〉 이슈에 따른 후보선택

	이명박 vs. 정동영 (모델 9)			이명박 vs. 이회창 (모델 10)		
	B	표준오차	유의도	B	표준오차	유의도
상수	2.486	0.53	0.00	2.256	0.93	0.02
충청	-0.251	0.20	0.21	-0.735	0.30	0.02
호남	-0.818	0.20	0.00	0.688	0.48	0.15
영남	0.393	0.16	0.02	-0.057	0.26	0.83
연령	0.241	0.05	0.00	0.130	0.09	0.15
규제완화	-0.253	0.11	0.02	-0.525	0.19	0.01
복지	-0.155	0.11	0.16	0.034	0.18	0.85
한미관계	-0.462	0.08	0.00	-0.388	0.14	0.00
대북지원	-0.234	0.09	0.01	0.010	0.16	0.95
성장과 환경	-0.532	0.14	0.00	-0.267	0.24	0.26
교육개혁	-0.121	0.14	0.39	0.233	0.22	0.30
사형제 폐지	-0.020	0.10	0.83	0.362	0.17	0.03
Cox & Snell R^2		0.26			.05	

많이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수 값의 비교에서는 오히려 한미관계에 대한 이슈태도가 더 크게 나타나, 한미관계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차이가 후보결정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경쟁을 분석한 〈모델 10〉에서는 한미관계에 대한 이슈태도가 지지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한미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의 유권자들이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회창 후보가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그 명분으로 다른 대선후보들의 대북정책 문제를 비난하였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이회창 후보의 대북정책에 공감하여 이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과정에서 이회창 후보가 대북문제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을 동원하는 데 실패한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유권자들은 이명박 후보보다 이회창 후보가 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의 강한 대북정책을 이념적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치적 공세로 간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앞의 〈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은 이명박 후보가 더 보수적이라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들에게 이회창 후보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선거운동은 별로 설득적이지 못하였다.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이전의 정권교체를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념적으로 이회창 후보에 동조하는 유권자들도 이명박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초기에는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다가 이명박 후보로 지지를 변경한 유권자들은, 그 수는 많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던 유권자들보다 이념적으로 더 보수적이었다. 따라서 두 이 후보 사이의 선택에서 이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되지 못한 것은 이들 이명박 후보로 지지를 변경한 유동적 유권자들로 인해 이념의 영향력이 차별적으로 작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이념평균과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다가 투표에서는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유동투표자의 이념평균을 비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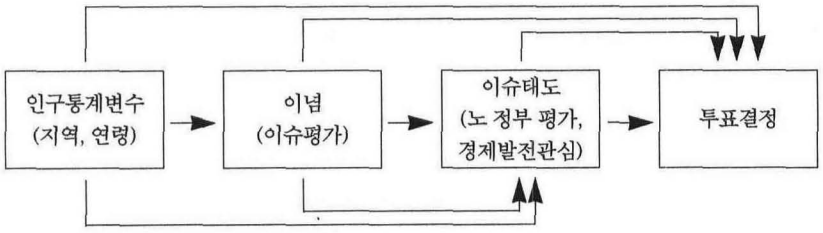
결과이다.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를 택한 유권자들의 이념평균은 5.6점인 데 비하여, 이회창 후보지지에서 이명박 후보로 지지를 바꾼 유권자들의 평균은 6.6점으로 유동투표자들의 이념성향이 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유동투표자 수가 24명으로 관찰치가 많지 않아 신뢰성이 약간 취약할 수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차로 나타났다.

4. 경로분석

이상의 분석은 각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그런데 독립변수들이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 아니라면 한 변수가 다른 독립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관계는 내생변수(endogenous)와 외생변수(exogenous)로 구분되어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로 계산될 수 있다. 특히 내생변수가 외생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 그리고 외생변수가 여러 내생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면 간접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때로는 직접효과보다 간접효과가 더 클 수도 있으며, 종합효과(total effect)는 직접효과만 측정했을 때와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론적 관점에서 투표결정에 미친 변수들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다음의 그림이 표시하는 바와 같이 인구통계 변수는 이념, 이슈태도 그리고 투표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슈태도와 투표결정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인구통계변수가 미치는 종합효과를 측정할 때 직

〈그림 2〉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의 관계



〈표 6〉 경로분석을 통한 영향력 분석 (종합효과)

독립변수 / 종속변수	영남	호남	충청	연령	이슈평가 이념	노 정부 평가	경제발전 관심
이슈평가이념	0.101	-0.278	0.083	0.579	-	-	-
노 정부 평가	0.027	-0.116	-0.058	0.188	0.113	-	-
경제발전관심	0.008	-0.021	0.006	0.009	0.075	-	-
투표결정	0.016	-0.153	-0.008	0.048	0.07	0.05	0.193

접효과뿐 아니라 이념을 거친 간접영향, 이슈태도를 통해 미친 간접영향 그리고 이념과 이슈태도의 두 가지 변수 모두를 거친 간접영향을 측정해야 한다. 이처럼 직접효과뿐 아니라 가능한 모든 경로를 거친 간접효과를 계산하여 종합효과를 제시한 것이 〈표 6〉이다.

위의 표에서 지역변수와 연령변수는 외생변수로서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변수들이다. 반면에 이슈평가이념 변수는 이슈태도변수인 노무현 정부 평가 그리고 경제발전관심 등의 변수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변수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내생변수로서 매개변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표결정 변수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을 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최종적인 내생변수로서 종속변수이다.

이슈평가이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의외로 연령변수(0.57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출신지역 변수 중 호남출신(-0.278)인 경우 다른 지역출신보다 이념 변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에는 연령(0.188)변수와 호남출신(-0.116)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평가는 나빠지며 호남출신들은 비교대상인 서울/경기/강원 출신들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제발전을 투표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경제발전관심이라는 변수에 이슈평가이념(0.075)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각 변수들은 다른 변수들과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최종적으로 후보선택(이명박 vs. 정동영)에 미친 각 변수들의 종합적 영향력을 분석해보면 경제발전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간주하는지의 여부(0.193), 호남출신 여부(0.153) 그리고 다음으로 이념(0.07)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V. 요약 및 토론

이 글에서 발견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권자의 이념이 17대 대선에서 투표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17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이념투표 분석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이념측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이념투표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기존의 대다수 연구들이 응답자들이 답변한 이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 데 반하여, 이 글에서는 이념과 관련된 다차원의 이슈태도점수를 통해 이슈평가이념이라는 지표를 만들었고, 이 지표가 이론적으로뿐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더 정확하게 유권자의 이념을 측정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의 경쟁에서는 이념투표가 유용성을 갖지만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 사이의 투표결정에서는 이념투표가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 글에서 주장하는 마지막 결론은 앞으로 이념투표는 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념의 영향력은 단순히 투표결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당차원에서 그리고 더 크게는 경제-사회적 측면에서도 그 영향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선거에서 이념투표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념투표가 가능한 선거조건이 만족된 것이 최근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이르러 정당 및 정치지도자들의 이념분화가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가 시작되던 시기에는 아직까지 민주와 반민주라는 대립축이 유용하였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더 이상 민주화세력이라는 상징적 동원기재로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 대북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 기존 사회세력과 입장을 달리하는 집단이 등장하고 이들의 이념은 진보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에 이념분화는 외교안보 중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회경제 분야로 이념적 균열의 범주가 확산되었다.

그런데 이념분화는 정치지도자와 일반 유권자들 사이에 상호강화시키는 작용을 하면서 더욱 그 범주가 확산되었다. 지역주의의 확산과정과 마찬가지로 정치지도자들은 정치동원을 위하여 이념균열을 강조하였고, 이에 동조하는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이 이념적 균열을 더욱 명백히 하여 이념적 정체성을 강화하

기를 기대하였다. 여기에 부응하여 정치인은 점차 고착화된 이념균열을 도모하게 되고 이념적 구분에 따라 동원되는 유권자들이 더욱 늘어나는 순환적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정치, 사회경제적 변화가 진행될수록 사회적 분화는 더욱 심화되고 이와 조응하여 진보집단도 발생하며 정치지도자들의 경쟁은 진보집단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결국 정치경쟁은 이념균열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념투표가 더 이상 유럽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이념투표는 앞으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이 다음 작업이다. 그동안 정치지도자 중심의 정치와 후보자 중심의 선거에서 점차 정당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비록 서구적 기준에서 보면 정당의 안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념경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현재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으로서 그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진보세력도 민주당 이후 당명은 변했지만 보수정당의 대항정당으로 선거 때마다 존재하였다. 특히 2002년 노무현 정부 등장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4번의 선거에서 이념논쟁은 중요한 선거이슈였다. 따라서 레드 콤플렉스(red complex)라는 이념적 경직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세대가 유권자 대다수를 차지하고, 다양한 가치관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이념투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념투표의 강도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념투표가 향후 존재할 것이라는 주장은 앞으로 이념투표가 더 강해질 것이라는 주장과는 차별적인 것이다. 오히려 이념투표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그 영향력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한국선거에서 이념투표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지역주의와의 관계에서 이념투표가 지역주의를 강화시킬 것인가 혹은 약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엇갈린 예측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존연구에서 밝혔듯이 지역주의와 이념투표의 균열 축이 동일하다면 그 영향력은 점차 더 커질 것이고, 반면에 균열 축이 서로 다르다면 이념투표의 강화는 지역주의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주의의 해소방안을 제시한 여러 학자들은 지역주의를 대체할 투표기재로서 이념투표를 제시한다. 경험적 분석을 해보면 호남이 분명히 지역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념상 호남과 영남의 차이를 보이지만 균열 축이 중첩된

것은 아니다. 지역주의와 이념투표 사이에는 경쟁적 관계나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역주의가 강해진다고 이념투표가 약해지는 것도 아니며 그 역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2007년 대통령선거를 보면 2002년 선거와 비교하여 지역주의와 이념투표 두 가지 동원기재는 모두 약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의 관계가 대체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추세를 보면 지역주의 투표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념투표는 이와 무관하게 정치와 선거환경에 따라 단기적으로도 영향력의 감소나 증대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에서 형성된 이념투표는 서구의 그것과 구성요소가 다르다. 먼저 한국에서 이념투표는 유권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순수한 정치적 정치견해의 집합이 이념집단 구성의 핵심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슈태도 정향이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성별, 연령, 그리고 호남출신 여부 등이 이념투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한국의 이념투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개념과는 차별적인 개념정의 및 분석적용이 필요하다.

〈부록 1〉 이명박 vs. 정동영—노무현 정부 업적평가 및 경제발전 관심변수 포함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주관적 이념 포함		후보와 이념거리 포함		후보와 이념방향 포함		이슈평가이념 포함	
변수명	B	유의도	B	유의도	B	유의도	B	유의도
상수값	-3.085	0.00	-2.162	0.00	-2.379	0.00	2.889	0.01
충청	-0.091	0.80	-0.187	0.62	-0.077	0.84	-0.159	0.70
호남	-2.148	0.00	-2.106	0.00	-2.102	0.00	-2.164	0.00
영남	0.433	0.17	0.389	0.22	0.401	0.20	0.363	0.27
연령	0.265	0.00	0.250	0.01	0.255	0.00	0.132	0.18
노 정부 평가	0.805	0.00	0.762	0.00	0.799	0.00	0.660	0.00
경제발전관심	1.723	0.00	1.725	0.00	1.735	0.00	1.568	0.00
주관적 이념	0.135	0.02	-	-	-	-	-	-
지지후보와 이념거리	-	-	-0.17	0.00	-	-	-	-
지지후보와 이념방향	-	-	-	-	0.048	0.00	-	-
이슈평가이념	-	-	-	-	-	-	0.316	0.00
예측 정확도(%)	85.4		85.6		86.4		85.6	

〈부록 2〉 이명박 vs. 이회창—노무현 정부 업적평가 및 경제발전 관심변수 포함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주관적 이념 포함		후보와 이념거리 포함		후보와 이념방향 포함		이슈평가이념 포함	
변수명	B	유의도	B	유의도	B	유의도	B	유의도
상수값	0.507	0.33	0.351	0.46	0.333	0.49	1.214	0.23
충청	-0.689	0.02	-0.689	0.02	-0.666	0.03	-0.638	0.04
호남	0.443	0.35	0.519	0.28	0.533	0.27	0.516	0.28
영남	-0.096	0.71	-0.113	0.66	-0.134	0.61	-0.018	0.95
연령	0.283	0.00	0.265	0.00	0.267	0.00	0.224	0.01
노 정부 평가	-0.119	0.28	-0.115	0.31	-0.108	0.34	-0.134	0.24
경제발전관심	1.421	0.00	1.398	0.00	1.401	0.00	1.402	0.00
주관적 이념	-0.039	0.46	-		-	-	-	-
지지후보와 이념거리	-	-	-0.105	0.02	-	-	-	-
지지후보와 이념방향	-	-	-	-	0.035	0.01	-	-
이슈평가이념	-	-	-	-	-	-	0.057	0.32
예측 정확도(%)	84.6		84.0		84.3		83.9	

[참고문헌]

강원택. 1998. "유권자의 이념적 성향과 투표행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2』. 서울: 푸른길.

강원택. 2002. "유권자의 정치이념과 16대 총선." 『한국의 선거 4』. 서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주찬 · 윤성이.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념성향이 투표에 미친 영향." 『21세기정치학회보』 13집 2호: 1-16.

최영진. 2001. "제 16대 총선과 한국지역주의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35집 1호. 149-165.

정영태. 1993. "계급별 투표행태를 통해 본 14대 대선." 『한국의 선거 1』. 서울: 나남.

김재한. 1999. "한국의 이념성향과 선거정치." 『한국의 선거 3』. 서울: 푸른길.

이정복. 1992. "한국인의 투표행태: 제 14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3호. 113-32.

최준영 · 조진만. 2005.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집 3호. 375-94.

Abramson, Paul R., John H. Aldrich, and David W. Rohde. 1982.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1980 Election.*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Asher, Herbert B. 1976. *Presidential Elections and American Politics.* Homewood, IL: Dorsey Press.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er, and Donald E.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Wiley.

Castles, Frances. 1982. *The Impact of Parties.* C.A.: Sage Publications.

Converse, Philip E.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 in Mass Publics." In David E. Apter, ed. *Ideology and Discontent.* London: Free Press of Glence.

Converse, Philip E. 1975. "Public Opinion and Voting Behavior." In Fred I. Greenstein and Nelson W. Polsby, ed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 4.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nverse, Philip E., and Gregory B. Markus. 1979. "Plus ca Change…: The New CPS Elections Study Panel."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3, No. 1: 32-49.

Downs, Am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Enelow, James M., and Melvin J. Hinich. 1982. "Ideology, Issues and Spatial Theory of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6, No. 3: 493-501.

Gerring, John. 1997. "Ideology: A Definition Analysi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50, No. 4: 957-94.

Hamilton, Malcolm B. 1987. "The Elements of the Concepts of Ideology." *Political Studies* 35: 18-38.

Hinich, Melvin J., and Walker Pollard. 1981. "A New Approach to the Spatial Theory of Electoral Competi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5, No. 2: 323-41.

Inglehart, Ronald. 1984. "Changing Cleavage Alignments in Western Democracies." In Russell Dalton, Scott Flanagan, and Paul Allen Beck. *Elector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ac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Jhee, Byong-Kuen. "Ideology and Voter Choice in Korea: An Empirical Test of the Viability of Three Ideological Voting Models."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40, No. 4: 61-81.

Key, V.O. 1966. *The Responsible Electorate: Rationality in Presidential Voting, 1936-6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Kinder, Donald R. 1983. "Diversity and Complexity in American Public Opinion." In A. W. Finifter, ed. *Political Science: The State of the Discipline.* Washington, D.C.: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Klingemann, Hans-Dieter. 1979. "Measuring Ideological Conceptualization." In samuel Barnes, Max Kasse et al. *Political Action.*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Levitin, Teresa E., and Warren E. Miller. 1979. "Ideological Interpretations of Presidenti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3, No. 4: 751-71.

McKelvey, Richard D., and Peter C. Ordeshook. 1990. "A Decade of Experimental Research on Spatial Models of Elections and Committees." In James M. Enelow and Melvin J. Hinich, eds. *Advances in the Spatial Theory of Vot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iler, Arthur H., Warren E. Miler, Alden S. Raine, and Thad A. Brown. 1976. "A Majority Party in Disarray: Policy Polarization in the 1972 Elec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0, No. 3: 753-78.

Miller, Warren E., and Merrill J. Shanks. 1982. "Policy Directions and Presidential Leadership."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2, No. 3: 299-356

Nie, Norman H., Sidney Verba, and John R. Petrocik. 1979. *The Changing American Vot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Niemi Richard G., and Herbert F. Weisberg. 1993. *Classics in Voting Behavior.* Washington D.C.: CQ Press

Page, Benjamin I., and Robert Y. Shapiro. 1983. "Effects of Public Opinion on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7, No. 1: 175-90.

Page, Benjamin I., and Calvin Jones. 1979. "Reciprocal Effects of Policy Preferences, Party Loyalties and the Vo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3, No. 4: 1071-89.

Rabinowitz, George, and Stuart Elaine Macdonald. 1989. "Directional Theory of Issue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3, No. 1: 93-121.

Satori, Giovanni. 1969. "Politics, Ideology, and Belief Syste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3, No. 2: 358-411.